



2차대전 피해 배상청구 한인연합회 창립행사에 참가한 피해자들이 향후 변호사들의 피해소송 대책을 심각하게 경청하고 있다. <이승관 기자>

“힘합쳐 징용피해 보상받자”

2차대전 피해배상청구연합회 창립

140여명 참여 소송절차등 논의

“당사자들이 모두 죽기 전에 이 문제를 끝내기 위해서 노인들이 모였습니다”

2차대전피해 배상청구 한인연합회(KAWWA·회장 이강대)는 28일 창립총회를 열고 앞으로 대대적 홍보를 통해 더 많은 피해자를 접수 하국과 관

두지 못했던 피해당사자들이다.

이날 행사에서 45년 히로시마로 강제징용 당해 ‘미쯔비시 중공업’ 소속 노동자로 착취당한 이강대 회장은 “당시 함께 끌려간 900명중 불과 6명만이 살아 남았다”며 “일본의 만행을 겪은 당사자들이 지금이라도 모스키

“우리들이 일본에 바라는 건 몇 푼의 돈이 아니라 진정한 사과와 한 마디”라고 말했다.

이날 모임에는 징용배상소송을 전개중인 공동변호인단이 참석해 소송 절차와 진행과정을 노인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혜원 변호사는 “연합회의 창립을 필두로 미주 뿐만 아니라 한국 북한 미주 등지의 피해

1.5세대 김포공항

미국서 출생했어
한국호적 올랐으
영사관에 반드시

미국등 해외체류 병역에 대한 병무청의 처벌된 가운데 많은 한인들 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김포공항에서 출국이 금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주의가 요망된다.

LA총영사관에 따르면 동포들이 잘 못알고 있는 전가족 이민시 모든

한인다수

